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김 정 업

학회에서 학회지의 단상에 실을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내가 은퇴를 한 후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이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하기로 했다. 직장을 떠난 지가 3년 4개월이 되니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이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연구 생활을 완전히 그만 두고 새로운 환경에 처음 접했을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일들로 마음이 무거웠었다. 연구에 대한 마음 가짐과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를 연구실에서 일 하고 있는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이 훗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글로 전하고 싶다.

은퇴를 하고 얼마 동안 겪은 고통 중 하나는 아침에 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곤 했다. 오늘도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하기 때문이었다. 늘 시간에 쫓긴 것이 몸에 베어 일이 없으면 불안하였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쉬운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연구실에서의 활동을 되 돌아보게 되고 다음으로는 여생을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이다.

나의 은퇴는 정상적이지 못했다. 2001년 2월까지 만 20년 간 몸 담았던 KIST에서는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바꾼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기간도 없이 적용되면서 퇴직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구원을 떠나게 되었다. 곧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에 교수로 채용이 되었고 동시에 삼성종합기술원에 자문역으로 일주일에 두 번 나가게 되었다. 1년 반이 지나 경성대학교에서는 정년퇴직을 하고 삼성종합기술원에는 상근 자문역으로 1년을 더 일하고 2003년 8월에 연구생활에 막을 내렸다.

앞 당겨진 정년 때 본인의 연구수행 감각은 절정에 도달했고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에 관한 핵심기술의 확립단계에 있었다. 지난 20년 간의 연구생활에서 수 백억 원의 연구비를 들여 얻은 연구수행능력과 외국 석학들과의 교류에서 얻은 국제적 감각을 제대로 전수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KIST를 떠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국가적으로는 큰 손해라 믿는다. 그래도 여러 해 연구경력이 쌓이면서 연구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생겨났고 소신껏 일하면서 새로운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은 큰 위안이 된다.

연구의 수행은 연구 과제가 정해지면 핵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철저히 파악하고 나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려는 자세라야 한다. 관련된 분야의 핵심 학술지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 내용을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정신이 필요하다. 다음 날 논문을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 오늘 잠자리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자세여야 한다. 논문은 SCI 순위가 높은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제학술 발표회에서 구두 발표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며 국제 석학들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

은퇴를 마음 먹었을 때 가졌던 가장 큰 불안은 앞으로 20년 가까이 더 살게 된다면 나의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었다. 그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고 지나느냐와 그 삶을 유지할 경제적 준비는 해 놓았는지를 따져보아야 했다. 연구 활동에서 은퇴한 사람들 중에는 체력이 다 할 때까지 보수를 받으면서 기관이나 회사에서 일 하는 기회를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많은 시간을 쓰든지 개인이나 단체로 여행을 다니게 된다. 이와 같은 생활은 잘 계획되지 않으면 목표도 없는 불규칙한 일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마음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정수입이라고는 연금이 아니면 저축한 재산을 빼 쓰는 것인데 앞으로의 지출이 얼마나 될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의료비도 한계를 모르겠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의 크기가 얼마일지는 알 길이 없다. 막연하지만 넉넉히 있어야 할 텐데 봉급에서 은행에 저축한 돈으로는 어렵도 없다. 어떤 분야에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 눈 팔지 말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야 하지만 노후의 비용 또한 직장에 있을 때 마련해야 하는 것이 연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갖는 어려움이다.

실사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해도 은행에 맡겨 둔다면 물가상승에 의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자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의 정부정책에서 개인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안정된 나라의 연구 종사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들은 우선 연금정책이 지금까지는 잘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연금저축 외에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금융투자기관의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저축수단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매달릴만한 사건도 없는데 찾아낸 것이 증권이다. 지난 3년 간 증권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약간의 주식매매 경험도 가졌는데 얻은 결론은 직장에 있을 때는 절대로 주식시장에는 접근을 말라는 것이다.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라도 증권에 관한 지식은 갖추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펀드는 간접투자라 하지만 종류가 많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므로 기본 지식은 있어야 한다. 증권은 과학연구와 맞먹는 특성이 있으며 도전할 대상이 된다. 연구실에서 단련된 사람에게는 몰두하기에 적합한 과제이다. 만년이 결코 지루할 수가 없다.

은퇴 생활에서 또 하나 몰두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이다. 연구실에서는 컴퓨터로 이메일을 하는 정도였지만 은퇴 후에는 어찌다 있는 강의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하고 원고도 써야 하며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야 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에는 한 시간 만 앉아 있어도 온 몸이 저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하려는 일은 많고 시간은 없으니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육체적으로는 크게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지금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컴퓨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적응이 되는 것에 나 자신도 놀라고 있다. 컴퓨터와 증권의 조합은 은퇴 후 생활에 좋은 소일거리가 되고 있다.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다짐도 한다.